

‘한국GM 회생’ 향후가 더 중요



김필수의
차 이야기

정부의 공적 자금 8000억원이 투입되면서 한국GM 회생에 대한 방향이 결정됐다.

필자는 수 개월 전부터 한국GM의 회생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이유 불문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글로벌 GM은 출자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지양하며, 노사 합의는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만든다는 주장이었다.

어느 하나 어긋난 사안은 없다. 이젠 한국 GM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미 반 토막 난 국내 판매율을 4%대에서 10% 대로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내 소비자는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냉정한 만큼 한계가 있는 차종, 장래가 불투명한 메이커에 큰 비용을 수반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아마 1~2년내에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정부

에서 앞으로 나오는 한국GM의 실사 결과나 자구책 등은 의미가 없어졌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향후에 한국GM 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GM의 먹거리이다.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차량이 없었던 한국GM의 입장에서는 향후 출시되는 차량이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는 입장에서 한국GM의 향후 신차에 대한 완벽한 각오가 없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합의를 통해 부평과 창원 공장에 신형 SUV와 CUV를 투입한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도 2~3년 후에 출시되는 차량이어서 그 동안 판매할 만한 차량이 극히 적다. 이퀴녹스라는 중형 SUV 등도 출시되나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GM에서 향후 10년간 약 15개 신차종 출시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시장의 반응은 무서운 만큼 이전 보다 품질과 가격 등 가성비비를 더욱 높이고 강력한 애프터 서비스로 소비자의 반응을 크게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당연히

신차의 품질 등 가성비비는 최고여야 한다는 조건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GM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지난 과거와 같이 적당히 하고 시간만 끄는 노사가 된다면 앞날은 뻔하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이 허리를 졸라매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앞길을 개척해야 시장은 반응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쌍용차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정부의 감시 능력이다. 지속적으로 한국GM의 자구책에 대한 검증은 진행해야 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8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상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자신의 돈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회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과연 진정성과 노사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항상 감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호주 등 해외 사례는 말할 필요 없이 참조할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검증에 위한 여러 코걸이를 하고 있으나 회사가 도태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협약인 만큼 모두가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영주 노동부 장관, 제107차 ILO 총회 참석



총회에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여성 관련 다양한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총회 기간 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프랑스, 싱가포르 등 각국의 노동 장관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사진)이 지난 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일하는 여성(Woman at Work)’을 주제로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매년 ILO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대표가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본회의 연설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동자 대표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참석했다.



신한카드, 위메프와 쇼핑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와 지난 5일 제휴 협약을 맺고 ‘위메프 원더페이 신한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위메프 이용 고객이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원더페이를 활용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김영호 부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업무협약 이후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신한카드

포스코 회장 선출, 정치권 개입 자제해야



기저 수집
양성운
(산업부)

국내 대표 철강기업이자 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의 새로운 CEO 결정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도 차기 회장 선출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외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아침 인천의 한 호텔에서 포스코 전임 회장들이 모였다. (이곳에서 한 참석자가) 장하성 청와대 실장 뜻이라며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전임 회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번 회장 선임과 퇴임 때마다 반복됐던 정권 외압 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포스코가 주인 없는 민간 기업인 만큼 외풍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외압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결국 기업을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입에 끝내야 한다.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주인 없는 기업에 공정한 인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간 제기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엄밀히 말해 ‘주인 없는 기업’이란 말도 잘못된 것이다. 포스코에는 엄연히 주주와 종업원과 고객이 있다. ‘주인’이란 기존 대기업처럼 ‘오너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주인 없는 기업이라며 정치권이 CEO 인선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위법’ 논란까지 될 수도 있다.

포스코의 경우 6단계에 걸친 회장 선임 절차가 있지만 매번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포스코의 경우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첫째도 주인의식, 둘째도 주인의식이 절실하다.

기존 포스코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 만큼은 외풍에 흔들리기 보다 포스코의 새로운 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과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내부자가 회장을 맡아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 이번엔 새로운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ysw@metroseoul.co.kr



롯데하이마트, 파트너사 컨설팅 지원협약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5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롯데하이마트 파트너사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을 진행했다.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한다는 게 이번 협약식의 골자다. 이날 협약식에서 다텍스텍 권기돈 대표(왼쪽부터), 렛테크 김준호 영업이사, 롯데하이마트 김현철 상품본부장, 포에이이디엘 백중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이베이코리아, 행안부와 마을기업 온라인 쇼핑 판로 지원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 및 온라인 쇼핑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왼쪽부터), 이상진 한국마을기업협회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원석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변 대표. /이베이코리아

발레리나 박세은 ‘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상 수상자로 박세은을 선정했다. 최고여성무용수상 부문에선 세계 각국 발레단 소속 발레리나 6명이 경쟁했다. 박세은은 조지 발란신의 안무작 ‘보석’(Jewels) 3부작 중 ‘다이아몬드’ 주역 연기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연협뉴스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무용수상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 제1무용수로 활약 중인 박세은(29·사진)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의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았다.

브누아 드 라 당스 조직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고 여성무용수

- 인사
-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영신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운만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서문교 ◇과장급 전보 △농지과장 홍인기
 - ◆여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권익지원

- 과장 조신숙
- ◆통계청 ◇과장급 임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포럼준비기획단총괄기획팀장 이민경
 - ◆한국수력원자력 ◇상임이사 임명 △품질안전본부장 이재동

부음

- ▲ 서필순씨 별세, 권흥순씨(대전MBC 국장) 모친상 = 4일 충남 예산종합병원, 발인 7일 오전, 041-331-4444
- ▲ 신복균씨 별세, 정두화(한국수출입은행 국제투자실장)·성화씨(사업) 모친상 = 5일 오전 5시,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추백실, 발인 7일 오전 11시, 장지 수원시림 자연장, 031-218-6588
- ▲ 이순규씨 별세, 이민준씨(전남도의원)씨 부친상 = 5일 오후 9시30분, 나주애향 장례식장1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장지 나주시

- 보산동 선영, 061-334-9000
- ▲ 박옥진씨 별세, 박재수씨(청주시의정회 회장) 장모상 = 5일 오전 6시, 대전 나진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42-525-3800
- ▲ 이후인씨 별세, 이동환씨(삼성증권 부산지점장) 부친상 = 5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53-620-4231
- ▲ 문신학씨(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장모상 = 5일 오후8시 전남 화순 전남대의대병원 발인 8일 오전10시, 061-379-7433
- ▲ 김춘자씨 별세·아들 현창하(전 남원읍리장협의회회장)·창홍·창용·창문·순녀·순량·순정·순심·순진씨 모친상 = 6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의례회관, 발인 8일 오전, 010-2690-3500
- ▲ 신지균씨 별세, 박경석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모친상 = 5일, 서울대병원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2-2072-202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65호